

(가) 송순, 「면앙정가」
(나) 나위소, 「강호구가」
(다) 채수, 「석가산폭포기」

한결T 생각 따라잡기 - 작품 독해

1. 작품·출발점 확인

(가) 면앙정가	면앙정에서 자연 속 삶을 누리는 작품임을 짧게 확인한다. 자연 속에서 무엇을 보고 듣고 행하며 흥취를 드러내는지 따라간다.
(가) 핵심 흐름	화자는 자연에서 즐길 것이 넘쳐 거름이 없다고 말하고, 적극적으로 풍류를 누린 뒤 신선과 이태백도 부럽지 않은 만족을 임금의 은혜로 돌린다.
(나) 강호구가	강호의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노래한 연시조이다. 자연에 대한 애정, 세상과의 거리,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확인한다.
(나) 핵심 흐름	화자는 자연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내고, 세상이 자신의 흥취를 알지 않기를 바라며, 고기 잡고 낚시하는 강호의 삶을 자신의 분수로 받아들인다.
(다) 석가산폭포기	직접 산수를 찾기 어려워진 글쓴이가 집에 석가산과 폭포를 만들어 즐기는 글이다. 인공의 자연에서 어떤 즐거움과 깨달음을 얻는지 확인한다.
(다) 핵심 흐름	글쓴이는 산수화만으로 채우지 못한 아쉬움을 석가산과 폭포를 직접 만들어 해소하고, 진짜와 가짜의 구분을 넘어 미각·시각·청각의 즐거움을 누리며 자신의 취향에 자부심을 드러낸다.

2. <보기> 구조

벼슬에서 물러남	→	귀향 후의 삶	→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 숙세와 거리를 둔 삶 자연의 흥취를 타인과 나눔 궁핍한 생활을 수용함
----------	---	---------	---	---

3. 어휘 및 해석

(가) 인간	여기서는 사람이 아니라 속세를 뜻함.
(가) 청려장	명아주로 만든 지팡이.
(가) 호탕정회	거리낌 없이 넓고 호방한 마음과 흥취.
(가) 역군은	또한 임금의 은혜라는 뜻.
(나) 바리연디	버려진 지.
(나) 단정	자그마한 배.
(나) 강호한적	자연 속에서 한가롭고 편안하게 지내는 삶.
(다) 석가산	산을 본떠 정원에 만든 조형물.
(다) 진짜	진짜와 가짜.
(다) 진경	실제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참된 경치.

4. 작품별 내용 분석

(가) 송순, 「면앙정가」

구간	핵심 내용	읽기 포인트
자연에서 즐길 것이 넘치는 삶	속세를 떠났는데도 보고 듣고 즐길 것이 너무 많아 ‘거를 없다’, ‘오늘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거를 없다’와 ‘부족하다’를 힘든 삶으로 읽지 않는다. 자연에서 누릴 것이 넘치는 풍요로운 상태를 강조한 표현이다.
적극적으로 자연을 누림	이 산에 앉아 보고 저 산에 걸어 다니며 쉬지 않고 자연을 즐겨 청려장이 닳을 정도이다.	화자는 자연을 정적으로 바라보기만 하지 않는다. 직접 걷고 이동하며 적극적으로 자연을 향유한다.
벗과 함께하는 풍류	술과 벗, 온갖 소리 속에서 누웠다 앉았다 하고 시를 읊고 휘파람을 불며 근심과 시름을 잊는다.	청각적 심상과 연속적인 행동을 함께 잡는다. 자연 속 흥취를 혼자 간직하기보다 벗과 나누려는 태도도 확인한다.
호탕한 만족과 임금의 은혜	현재의 삶을 신선과 이태백에 견줄 만큼 만족스럽게 여기며, 마지막에는 이 삶까지 임금의 은혜로 돌린다.	자연 속 삶의 만족이 최고조에 이른 뒤 ‘역군은’으로 마무리된다. 속세와 거리를 두는 것과 임금에 대한 감사는 함께 나타날 수 있다.

(나) 나워소, 「강호구가」

제3수 자연에 대한 깊은 애정과 성은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약도 효험이 없는 ‘병’에 빚대고, 자신이 아직 살아 있는 것까지 임금의 은혜로 여긴다.	‘강호에 버려졌다’는 말만 보고 원망을 확정하지 않는다. 종장의 ‘성은’까지 읽고 태도를 판단한다.
제5수 세상과 거리를 둔 강호의 흥	달 밝고 바람 잔잔한 물 위에서 작은 배를 띄워 흥취를 즐기며, 백구에게 세상이 이 즐거움을 알지 못하게 하라고 한다.	자연을 즐기는 점은 (가)와 같지만 흥취를 타인과 나누려 하지 않는다. 세상과 거리를 두고 조용히 간직하려는 방향이다.
제9수 강호 생활을 자신의 분수로 수용	벼슬의 녹을 끊은 뒤 고기 잡고 낚시하는 삶을 아이들은 괴롭다고 하지만 화자는 ‘강호한적’이 자신의 분수라고 여긴다.	생활 자체와 그것을 평가하는 태도를 구분한다. 본문에는 궁핍한 생활상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는다.

(다) 채수, 「석가산폭포기」

산수화로는 채워지지 않는 아쉬움	나이가 들어 직접 산수를 찾기 어려워지자 산수화를 모아 감상하지만 생동하는 맛을 느끼지 못해 마음이 허전하다.	산수화 감상은 목적의 완성이 아니라 다음 행동을 낳는 부족한 대안이다.
[A] 석가산과 폭포 제작	연못을 파고 괴석과 나무로 산을 만든 뒤, 담 밖 우물의 물을 끌어와 산 위에서 두 계단의 폭포로 흐르게 한다.	그림을 감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연의 구조를 직접 공간 안에 재현한다. 옛사람과 다른 방식으로 만들었다는 자부심도 드러난다.
진짜와 가짜의 구분을 넘는 자연 향유	작은 석가산을 큰 산처럼 여기며 산수화보다 생생한 경치를 즐기고, 하늘이 만든 것과 사람이 만든 것의 진가를 굳이 나누지 않는다.	석가산을 ‘진짜 자연을 대신하는 열등한 가짜’로 읽지 않는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취하면 된다는 인식이 중심이다.
[B] 미각·시각·청각의 세 가지 즐거움	차고 맛있는 샘물은 입을, 돌과 나무와 폭포의 경치는 눈을, 밤의 폭포 소리는 귀를 즐겁게 한다.	[A]의 제작 행위가 [B]의 세 가지 즐거움으로 이어진다. 과정과 결과의 관계를 잡아 57번에 연결한다.
소박한 취향에 대한 자부심	가난하고 벼슬도 한미하지만 하나의 샘에서 세 가지 즐거움을 얻으므로 부족하지 않다고 여기며, 세상 사람들이 비웃어도 자신의 취미를 바꾸지 않겠다고 한다.	결핍을 하소연하거나 타인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다. 세속적 기준과 다른 자신의 취향에 대한 만족과 자부심이다.

5. 세 작품 비교

공통 기준	세 작품은 모두 자연을 즐기는 삶을 다루지만, 자연을 향유하는 방식과 세상과의 거리에서 차이를 보인다.
(가)의 구현 방식	보고 듣고 걷고 술과 벼를 즐기는 행동을 연속적으로 제시하여 자연 속 풍류를 호탕하고 개방적으로 드러낸다.
(나)의 구현 방식	강호의 흥취를 자신의 분수로 받아들이면서도 세상이 그 즐거움을 알지 않기를 바라며 속세와 거리를 둔다.
(다)의 구현 방식	직접 산수를 찾는 대신 집 안에 석가산과 폭포를 만들어 자연을 재현하고, 인공과 자연의 진가를 구분하지 않는 태도로 감각적 즐거움을 누린다.

6. 문제 이동

지문을 읽기 전에 54번 <보기 1·2>를 확인한 뒤	‘임금의 은혜 / 속세와의 거리 / 흥취를 타인과 나눔 / 궁핍한 생활 수용’의 네 기준만 잡고, 어느 항목이 공통인지는 본문에서 확인한다.
(가) 「면양정가」의 마지막 ‘역군은’까지 읽은 뒤	54번의 ㄱ과 ㄴ, 55번의 ㉓·㉔를 처리한다. 자연 속 풍류의 풍요와 임금의 은혜를 함께 확인한다.
(나) 「강호구가」 제9수까지 읽은 뒤	54번의 ㄴ·ㄷ·ㄹ과 55번의 ㉔를 판단한다. 세상과의 거리, 타인과 흥취를 나누는지, 생활상이 실제로 궁핍하게 제시되는지를 분리한다.
(다) [A]와 석가산 제작 부분을 읽은 뒤	55번의 ㉔와 57번의 [A] 정보를 확보한다. 옛사람과 동일한 방식이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임을 표시한다.
(다) 진가에 대한 생각과 [B]까지 읽은 뒤	56번의 <보기>를 적용하고 57번을 처리한다. 인공과 자연의 진가 구분, [A]의 제작과 [B]의 세 가지 즐거움의 인과를 확인한다.
세 작품을 모두 읽은 뒤	53번을 최종 처리한다. 선지마다 실제로 사용된 표현 방식이 있는지 확인하고, 단순히 자연물이 많다는 사실을 시선 이동으로 바꾸지 않는다.

7. 문제 해설

53번	
문제 유형	표현상의 특징
문제풀이 타이밍	세 작품을 모두 읽은 뒤 처리한다.
문제풀이 스킬	공통 표현 문제는 선지의 표현법 이름을 먼저 보고 각 작품에서 실제 근거가 있는지 하나씩 확인한다. 자연물이 제시된 것과 시선이 이동한 것은 구분한다.
답을 내는 핵심	(가)~(다)에는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을 이동하며 심리 변화를 드러내는 구조가 없다.
정답 해설	㉮ 세 작품 모두 자연물과 경치를 다루지만, 멀리 있는 대상에서 가까운 대상으로 시선을 옮기며 심리가 변화하는 전개는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가)와 (나)의 규칙적 음보, (가)와 (다)의 청각적 심상, (나)와 (다)의 비유적 표현, 세 작품의 비교 방식은 각각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지에서 틀릴 수 있는 부분	자연 경치가 제시된다는 사실을 곧바로 ‘원경→근경의 시선 이동’으로 바꾸면 안 된다. 시선 이동은 실제 관찰 순서가 드러나야 한다.
한 단계 더	공통점 문제에서는 표현법의 이름보다 각 작품에 실제 근거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다.

54번	
문제 유형	〈보기〉 문제
문제풀이 타이밍	(가)와 (나)를 모두 읽은 뒤 처리한다.
문제풀이 스킬	〈보기〉의 네 기준을 각각 두 작품에 대입한다. ‘공통점’이므로 한 작품에서만 확인되는 내용은 제외한다.
답을 내는 핵심	두 작품 모두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고, 숙세와 거리를 둔 강호의 삶을 드러낸다.
정답 해설	㉮ (가)는 자연 속 삶의 만족을 ‘역군은’이라고 하여 임금의 은혜로 돌리고, (나)도 제3수에서 ‘성은’을 언급한다. 또한 두 작품 모두 벼슬에서 물러난 뒤 강호의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 준다. 따라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것은 ㄱ과 ㄴ이다.
선지에서 틀릴 수 있는 부분	ㄷ은 (가)의 ‘벗지라 업슬소냐’에서는 확인되지만, (나)는 백구에게 세상이 자신의 흥취를 알지 못하게 하라고 한다. ㄹ은 두 작품 모두 궁핍한 생활상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는다.
한 단계 더	‘둘 다’가 조건이면 한쪽에만 있는 근거는 아무리 분명해도 정답이 될 수 없다.

55번	
문제 유형	상황의 맥락 이해
문제풀이 타이밍	㉔~㉔가 나올 때마다 앞뒤 문맥을 확인하고, (다)의 석가산 제작 부분까지 읽은 뒤 확정한다.
문제풀이 스킬	표시된 구절만 떼어 읽지 말고 바로 앞 문장에서 무엇과 비교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특히 자부심의 근거가 ‘같음’인지 ‘다름’인지 구분한다.
답을 내는 핵심	㉔는 옛사람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자신만의 다른 방식으로 석가산과 폭포를 만들었다는 자부심이다.
정답 해설	㉔ 글쓴이는 옛사람들도 가산과 폭포를 만들었다고 한 뒤, 자신처럼 연못 한가운데 산을 만들고 사방을 물로 둘러싼 곳에 폭포를 만든 사람은 없었다고 말한다. 따라서 ㉔는 옛사람과 동일한 방식에 대한 보람이 아니라, 남과 다른 방식으로 손쉽게 석가산을 만든 데 대한 자부심을 드러낸다.
선지에서 틀릴 수 있는 부분	비교가 나온 선지는 ‘같다/다르다’의 방향을 먼저 확인한다. 이 선지는 바로 앞의 ‘나처럼 ... 사람은 없었다’를 반대로 바꾸었다.
한 단계 더	㉔~㉔ 문제는 표시 구절보다 한 문장 앞을 먼저 보는 습관이 효과적이다.

56번	
문제 유형	<보기> 문제
문제풀이 타이밍	(다)의 진가에 대한 생각과 세 가지 즐거움, 마지막 태도까지 읽은 뒤 처리한다.
문제풀이 스킬	<보기>에서 제시한 ‘석가산 완상→진경과 같은 즐거움→삶의 깨달음’만 본문에 대응시키고, 본문에 없는 과정이나 목적을 추가하지 않는다.
답을 내는 핵심	세 가지 즐거움은 석가산을 완상한 결과이며, 제작 과정의 고충이나 타인을 설득하려는 목적은 본문에 없다.
정답 해설	㉔ 글쓴이는 석가산을 만든 뒤 샘물의 맛, 석가산과 폭포의 경치, 폭포 소리에서 각각 미각·시각·청각의 즐거움을 얻는다. 그러나 석가산을 만드는 과정에서 고충을 겪었다는 내용은 없고, 마지막의 말도 자신을 비웃는 사람들을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취미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낸 것이다.
선지에서 틀릴 수 있는 부분	<보기>의 ‘즐거움·깨달음’을 본문에 없는 ‘제작의 고충·타인 설득’으로 확대했다. 맞는 개념 뒤에 작품에 없는 목적을 붙인 오답이다.
한 단계 더	<보기> 적용 문제에서는 개념이 맞아도 작품에 없는 원인·목적은 덧붙이면 틀린다.

57번	
문제 유형	상황의 맥락 이해
문제풀이 타이밍	[A]와 [B]를 모두 읽은 직후 처리한다.
문제풀이 스킬	[A]와 [B]를 각각 ‘행위’와 ‘결과’로 한 줄씩 요약한 뒤 두 부분의 인과 관계를 확인한다.
답을 내는 핵심	[A]에서 석가산과 폭포를 만든 행위가 [B]의 미각·시각·청각의 세 가지 즐거움으로 이어진다.
정답 해설	② [A]에서 ‘나’는 연못과 돌산을 만들고 담 밖의 물을 끌어와 폭포가 흐르게 한다. 그 결과 [B]에서 샘물의 맛으로 입이 즐겁고, 석가산의 경치로 눈이 즐겁고, 폭포 소리로 귀가 즐거운 세 가지 즐거움을 얻는다.
선지에서 틀릴 수 있는 부분	[A]에는 내적 갈등이 없고, ‘계단’과 ‘절벽’은 모두 실제 석가산에 조성된 소재이다. [B]에서도 이웃들은 물을 긍정적으로 이용하며, 물을 집 밖으로 흘려보내는 과정은 제시되지 않는다.
한 단계 더	[A]·[B] 관계 문제는 각 부분을 사건 하나로 압축한 뒤 ‘원인→결과’인지부터 확인한다.